

한국 미디어교육연구 실태 및 경향 분석 연구

김 기 태 (Kim, Ki-tai) *

(E-mail : kkt0007@daum.net)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1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1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서강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 미디어교육연구 실태 및 경향 분석 연구*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84년부터 2010년 9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49종에 발표된 미디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주제 논문 11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시기별 경향(연구문제1), 연구 분야별 경향(연구문제2), 연구 주제별 경향(연구문제3), 연구방법론별 경향(연구문제4)과 같은 4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시기별 분석 결과 1990년대 이전 초기 연구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의 소수 연구에 불과했고, 전체 분석 대상 논문 중 88.1%(103편)가 2001년 이후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미디어교육 연구는 2001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는 초기인 1995년 이전에는 주로 언론학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64.1%로 언론학 분야에서의 연구 31.6%에 비해 두배 이상의 압도적 우의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교육과정·교수법·교재개발 관련 연구가 전체의 36.8%(43편)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개념·이론·모델 개발 관련 연구(22.2%), 정책·실천과제 연구(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디어교육 효과연구(7.7%)와 교육현장 사례분석(3.4%) 관련 연구는 관련 논문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연구 방법론별 분석 결과 자료 분석 등 문헌연구가 전체

논문의 66.7%(78편)로 압도적인 우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뷰 조사나 설문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17.9%(21편)으로 나타났다. 내용 및 콘텐츠 분석 방법(7.7%)이나 참여관찰 또는 실험연구(4.3%)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미디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경향 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디어교육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중요한 분야이다. 그런만큼 현장의 필요에 의해 순발력있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조건의 교육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교과과정이나 교재 개발, 그리고 지도자 양성과 같은 문제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결과제였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 때문에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는 그 역사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아직 이론적, 방법론적 체계화나 연구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관련 연구자 수나 논문집 발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편이다(김기태 2009, 987).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실태와 경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있다.

* 이 논문은 "2009년 호남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지원받은 논문"임.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논문은 한국 미디어교육의 현재 수준 그리고 그 경향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과제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 연구는 기존 언론학 관련 연구 분야들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¹⁾ 아직 연구 영역과 범주 그리고 연구 방법 등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영역이나 분야로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연구 대상일 수도 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현상이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고 그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정교한 이론화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특정 연구 또는 학문 분야로 독립하는 단계를 감안하면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는 현재 초기 단계의 연구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중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이론적 완성도를 담고있는 연구 결과도 있고 연구 및 교육 활동 면에서 세계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학자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미디어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수준과 현실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다.²⁾ 다만, 최근 들어 미디어교육 관련 논의나 연구의 종류와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언론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수용자 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신기술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반화, 그리고 시민사회와 미디어, 각종 미디어의 창조적 활용 등 미디어교육 연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및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 1) 한국에서 미디어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공식 논문은 1980년 최창섭 당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대략 30여년의 연구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10여년은 소수 연구자에 의한 명목 유지 수준이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 물론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의 수준이나 현실에 대한 평가 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 논문이나 저서 발간 실태 또는 연구자 수와 학회 활동, 관련 강좌 또는 학과 개설 여부 등 다양하다. 이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해외 미디어교육 연구 사례 및 결과들이 신속하게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국내에 소개됨으로써 이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자생적 연구 성과들과 결합하면서 관련 연구 발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는 미디어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월등히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현장 연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미디어교육 현장의 활성화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연구자와 실천가 또는 교육자를 겸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연구 분야의 특성이 다양한 미디어교육 실천 사례를 축적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오히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이론화나 체계화를 더디게 만드는 다소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단계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의 실상은 급증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현장 사례나 제도화에 대한 열망에 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나 성과는 미흡하다는 점이다(김기태 2009, 991-993).

이러한 한국 미디어교육의 현실적 상황 인식을 토대로 본 논문은 미디어교육 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경향 및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본 논문은 그동안 이루어진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최근까지의 연구 논문(2010년 9월)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동시에 1980년대 초중반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의 출발 배경

한국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연

계성 아래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김기태 2007, 141). 한국의 특수한 매체 환경에 의해 ‘교육’보다는 ‘운동’으로서의 미디어교육 논의와 활동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이라기 보다는 미디어운동 또는 수용자운동 영역에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역사가 축적되었다. 물론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운동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대부분 시민사회운동은 의식화교육 단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없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교육과 운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런점에서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운동은 같은 목적을 지닌 활동 방식, 개념의 유사한 용어들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다. 적어도 미디어 환경 또는 언론 환경이 비판과 저항이라는 매우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집단적 사회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지난 2-30년 동안의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한 한국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운동의 독특한 특성은 사회 및 미디어환경이 변화한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흐름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의식과 형식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사회운동적 성격 형성의 배경인 셈이다. 이런 사회운동적 성격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은 자연스럽게 관련 전문 학자나 연구자들보다는 현장 실천가나 지도자, 교사 또는 사회운동가들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일부 미디어교육 현장에 동참한 연구자나 학자들도 연구보다는 실천을 위한 자문이나 지원 성격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하고 강사나 교재 집필 작업에 관여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현장 실천 중심의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운동 성격의 활동과 논의가 변화하게 된 것은 한국의 사회 및 매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물론 이 변화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치열한 투쟁과 저항 대상으로서의 정치 및 매체 환경 변화는 매우 분명한 시대적 흐름이었다. 이런 변화한 매체 및 사회 환경에 따라 미디어교육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디어교육의 내용도 변

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변하고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현장에도 변화가 왔다. 비판과 저항이라는 사회운동적 미디어교육의 주요 내용이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바뀌었다. 과거 미디어교육이 미디어운동, 언론수용자운동, 모니터운동 등과 거의 동의어로 쓰여졌던데 비하면 최근에는 급변하는 신기술 매체 환경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폭넓은 교육 및 문화 활동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주도하던 지도자들도 학교 교사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로 바뀌었다. 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루어졌던 미디어교육이 초중고생 대상의 학교 미디어교육으로 바뀌는 것이다.

II. 기존 연구 동향 분석

1. 미디어교육 연구의 실태 및 특성 연구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소수의 언론학자들에 의해 주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최창섭, 1980; 김학수, 1984; 차배근, 1986; 김우룡·오택섭, 1986; 김규, 1986; 김기태, 1988; 최선열, 1989).

그러나 당시 한국 미디어 환경은 독재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가 지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디어교육보다는 미디어운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이런 미디어 환경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관련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연구를 수행한다고 해도 대부분 미디어운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간정부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부터 미디어교육 연구는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 실태 및 특성을 정리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기태 2009, 998-1001).

첫째 가장 많은 논문 주제가 바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강조나 미디어교육의 개념 및 정의 그리고 한국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었다. 이는 곧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가 풍부한 실천 사례나 활발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준은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다.

둘째, 많은 연구들이 미디어교육 제도화나 체계화를 주장하는 정책 연구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가 실천적인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다분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분에 입각하여 논문이나 보고서 또는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언론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미디어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교사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셋째, 그동안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 이 경우는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 연구자나 학자 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 및 학교 지도자나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교육대학원, 언론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이를 학위 논문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관련 연구에 기여해 왔다.

넷째,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분석이나 시안 개발 관련 논문도 적지 않았다. 한국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교육 현장은 자연스럽게 실제 교육에서 사용한 각종 교재, 지침서, 워크북 등을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시안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연구 프로젝트로 교재를 분석한 보고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재 분석 연구들이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 의해서도 실천적 교재 개발 시안들이 적지않게 제시되었다.

다섯째, 교육 대상에 맞는 교과과정이나 커리큘럼 등을 개발하기 위

한 연구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경우는 언론학보다는 교육학이나 교육공학 전공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관련 학술지에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여섯째, 논문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그렇게 풍부하진 못했으나 미디어교육 현장 사례의 효과 분석 논문도 몇몇 석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미디어교육 효과 연구는 미디어교육 연구의 이론화와 체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시도되어야 할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일곱째,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구 논문들도 갈수록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리터러시 관련 연구 결과를 현대적 신기술 미디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응용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질과 양을 풍성하게 만든 경향이 있었다. 즉, 도서 리터러시, 문학 작품 리터러시 등 국어 교육에서의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광고 리터러시, TV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매우 활발한 연구 성과를 기록한 연구 주제이다.

여덟째, 미디어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주제로 미디어교육 교수-학습법 관련 논문들이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전통적인 교수법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미디어교육의 특수성에 기반한 새로운 교수법 개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아홉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미디어 환경에 따른 미디어교육 연구로 디지털 미디어교육, 게임 미디어교육, 휴대폰 미디어교육 등 새로운 미디어 대상 미디어교육 연구이다. 그동안 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이나 사이버 미디어교육 또는 정보통신 미디어교육의 범주에 머물렀던 연구 영역이 뉴미디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대상으로한 새로운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들이 최근들어 점차 발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끝으로 한국 미디어교육의 사회운동 또는 시민운동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관련 연구 또한 미디어운동과 미디어교육의 관련성 아래에

서 적지않은 논문들이 생산되었다. 과거 KBS 시청료거부운동을 분석한 언론수용자운동 관련 논문을 비롯하여 지난 10여년동안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각종 시민언론운동을 다룬 연구 논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2. 한국 미디어교육 성격 분석 연구

한국 미디어교육의 실태 및 현장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성격과 특성이 나타난다(기선정·김광희, 2004; 김양은, 2005; 김기태, 2007). 이러한 특성들이 미디어교육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첫째, 교육 대상 매체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은 영상매체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매체 접촉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 집중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미디어교육이란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내용 비판적 읽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민단체 및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목표가 리터러시 개념의 ‘비판적 미디어 읽기’와 ‘미디어 제작’보다는 오히려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습득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재에서 담고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 구성에는 ‘제작’ 교육을 위한 단순 미디어 지식이나, 혹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미디어 해독의 개념보다는 단순하고 선언적인 ‘비판적 읽기’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

은 교육 현장 상황 즉,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교육 방법은 메시지 분석 중심 교육, 매체 감시활동 중심 교육, 미디어 제작 활동 중심 교육, 매체의 교육적 활용 중심 교육 등이었다.

넷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둘 사이에는 모든 교육이 상호교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은 주로 사회 단체가 주도하고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은 분석 결과 비교적 분명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도자 교육과 피교육자 대상 교육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교육 수준의 모호성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말해주는 분석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여섯째, 교육 대상 연령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이었으며 유치원 대상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은 계발 활동(CA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 정규 교과 시간을 이용한 미디어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미디어교육 시행 주체는 시민사회단체 미디어교육과 공공기관 미디어교육이 서로 결합하는 형태로 분석되었고, 점차 공공기관 지원 미디어교육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교사 중심의 미디어교육이 갈수록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미디어교육 연구 메타 분석

미디어교육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메타 연구로는 최초인 전경란의 연구 결과(전경란 2009)는 본 논문의 연구 문제 설정이나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미디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총 31개 학술지에서 모두 79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미디어교육 연구는 미디어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공학, 국어교육학, 언론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미디어교육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각 학문 분야별로 이론적 배경과 교육실천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비슷한 연구주제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동시에 연구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특정한 주제를 여러 학문분야에서 조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각 학문분야가 미디어교육 연구를 위해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연구대상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적인 연구공동체를 이루고,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고유한 연구방향과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디어교육 연구는 학문 그 자체로서 의의를 지니고 발전했다기보다는 사회적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혹은 당시의 교육정책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미디어교육 연구주제들이 시기별로 등장한 상황이 그러한 특징을 드러내준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는 미디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비중이 컸다. 그러나 거시적 분석 차원의 연구에 비해 미디어 이용자와 미디어 이용 맥락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분석대상 논문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학술연구로 한정하였다.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다양한 교재를 비롯하여 각종 단행본 또는 학위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검색은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인 Kiss(<http://koreastudies.net>)에서 미디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주제어를 입력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에다가 국회도서관 학술연구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역시 동일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색된 논문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으로 다시 대상을 한정하였다. 분석 논문은 1984년 부터 2010년 9월 까지의 논문 총 117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³⁾

본 논문은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 실태 및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시기별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분야별 경향은

3) 한국 최초의 미디어교육 관련 학술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에 발표되었으나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이라는 전제 때문에 1984년 『방송연구』(현 『방송통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부터 포함하였다.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주제별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방법론별 경향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시기별 경향은 5년 단위로 묶어 모두 5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1기(1990년 이전), 2기(1991-1995년), 3기(1996-2000년), 4기(2001-2005년), 5기(2006-2010년) 등이다.

다음으로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별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경란의 연구를 참고하여 언론학, 교육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전경란 2009, 27-29)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학문 분야를 세분화할 경우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언론학과 교육학으로 단순화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별 경향 분석을 위해서는 역시 전경란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유목을 토대로 미디어교육 개념·이론·모델 개발, 교육과정·교수법·교재개발, 정책연구·실천과제, 효과연구, 교육 현장 사례 연구 등으로 나누었다.

끝으로 미디어교육 연구 방법론은 문헌연구, 인터뷰·설문조사, 내용·콘텐츠분석, 참여관찰·실험연구 등으로 나누었다.

2. 분석 대상 논문의 게재 학술지 현황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대상 논문의 게재 학술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분석 대상 논문의 게재 학술지 현황

편수(%)

분야	학술지명		계
언론학	한국언론학보(8), 언론정보학보(8), 방송통신연구(7), 한국방송학보(5), 한국출판학연구(4), 언론과학연구(3), 방송과 커뮤니케이션(1), 미디어•젠더&문화(1)		37 (31.6)
교육학	교육공학	교육정보미디어연구(9), 교육공학연구(4)	13 (17.3)
	교육학	중등교육연구(7), 교육방법연구(1), 교육사상연구(1), 한국교육학연구(1), 교과교육학(1)	11 (14.6)
	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연구(11), 국어교육연구(7), 새국어교육(2), 한국초등국어교육(2), 국어교육(1), 국어국문학(1)	24 (32)
	사회교육학	사회과교육(2), 사회과학연구(1), 시민교육연구(1)	4 (5.3)
	어린이 청소년학	어린이미디어연구(1), 아동학회지(1), 한국영유아보육학(1), 유아교육연구(1), 한국청소년연구(1), 청소년학연구(1), 청소년시설환경(1)	7 (9.3)
	기타 교육학	기독교교육정보(2), 한국언어문화(2), 독일어문학(2), 독어교육(1), 독일어문학(1), 프랑스학연구(1), 특수교육(1), 한국실과교육학회지(1), 교원교육(1), 어문학(1), 국제어문(1), 어문연구(1), 카프카연구(1)	16 (21.3)
기타	한국학연구(2), 디자인지식논총(1), 한국콘텐츠학회지(1), 북한연구학회보(1)	5 (4.3)	
계			117 (100)

위의 <표1>에서 나타나듯이 분석 대상 학술지를 살펴보면, 언론학 관련 학술지 8종을 비롯하여 교육학 관련 학술지 36종 그리고 기타 분야 5종으로 총 49종의 학술지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

중 교육학 분야는 다시 교육공학(2종), 교육학(5종), 국어교육학(5종), 사회교육학(3종), 어린이·청소년학(7종), 기타 교육학(13종) 등으로 나타났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한국 미디어교육 논문의 연구 시기별 경향 분석 결과 및 논의(연구문제1)

<연구문제1>“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시기별 경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의 시기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의 시기별 현황
편수(%)

분야	연구 시기					계
	제1기 (-1990)	제2기 (1991-1995)	제3기 (1996-2000)	제4기 (2001-2005)	제5기 (2006-2010)	
언론학	5	2	2	9	19	37
교육학	1	0	4	38	32	75
기타	0	0	0	0	5	5
계	6 (5.1)	2 (1.7)	6 (5.1)	47 (40.2)	56 (47.9)	117

연구 시기별 분석 결과 1990년대 이전 초기 연구는 주로 언론학 분야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지만 이를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나 기타 학술지 게재 논문까지로 확대할 경우 언론학 중심 연구 경향을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전체 분석 대상 논문 중 88.1%(103편)가 2001년 이후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미디어교육 연구는 2001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현상은 실제 한국에서 시민사회 단체나 종교기관 주도로 시행된 미디어교육이 1990년대 이미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당시 연구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는 곧 한국에서는 미디어교육이 초기에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기 보다는 현장 사례 중심으로 양적인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01년 부터는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 편수가 급격히 늘어 났는데, 이 기간 중에도 전반기(40.2%)에 비해 후반기는 9월까지의 연구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47.9%로 급증하고 있어서 갈수록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 연구는 교육 및 사회 현장에서의 실천은 1990년대 즉,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에 대한 관련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 역사는 미디어교육 실천 역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일천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이론적이고 다양한 미디어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2. 한국 미디어교육 논문의 연구 분야별 경향 분석 결과 및 논의(연구문제2)

<연구문제2>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분야별 경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의 분야별 분석 결과는 앞의 <표1>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는 초기인 1995년 이전에는 주로 언론학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64.1%로 언론학 분야에서의 연구 31.6%에 비해 두배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또는 법적 체계화 등을 위해 많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언론학 관련 분야의 정책적 추진 움직임에 비해 연구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학과 교육학 분야의 연구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언론학 전공 대학생들의 교직과정 신설을 위해 쏟아왔던 언론학계의 그동안 노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학 분야를 다시 세분화하여 구분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교육학 분야 논문 75편 중 교육공학이 17.3%(13편), 교육학이 14.6%(11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디어교육이라는 학문 분야의 특성상 교육공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앞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도 있다. 주로 어느 과목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한국에서의 학교 미디어교육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인데 국어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32%(24편)으로 사회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 5.3%(4편)를 압도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 중 2010년 9월 현재까지 단 1편의 논문만을 게재한 학술지가 전체 총 49종 중 30종으로 6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미디어교육 연구가 일부 학술지에 치우쳐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살펴보면, 교육정보미디어연구(9편), 한국언론학보(8편), 언론정보학보(8편), 중등교육연구(7편), 방송통신연구(구 방송연구)(7편)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미디어교육 연구의 특성상 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

육학의 양대 관련 학문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교육학 관련 논문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연구 논문 편수만으로 연구 내용의 질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언론학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는 언론학 관련 연구자와 교육학 관련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작업에 참여하여 서로 교류협력을 통한 융합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연구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두 관련 학문 분야간 융합적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한국 미디어교육 논문의 연구 주제별 경향 분석 결과 및 논의(연구문제3)

<연구문제3>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주제별 경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제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제별 현황
편수(%)

분야	연구 주제						계
	개념/이론 모델 개발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개발	정책 연구 실천 과제	미디어 교육효과 연구	교육 현장 사례 분석	기타	
언론학	10	7	9	4	2	5	37
교육학	13	35	14	5	2	6	75
기타	3	1	1	0	0	0	5
계	26 (22.2)	43 (36.8)	24 (20.5)	9 (7.7)	4 (3.4)	11 (9.4)	117 (100)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교육과정·교수법·교재개발 관련 연구가 전체의 36.8%(43편)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개념·이론·모델 개발 관련 연구(22.2%), 정책·실천과제 연구(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디어교육 효과연구(7.7%)와 교육현장 사례분석(3.4%) 관련 연구는 관련 논문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먼저 교육학 또는 교육공학 관련 주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개념 및 이론 연구와 정책 연구가 비슷한 비율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결국 미디어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균형있는 연구 주제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미디어교육의 수준과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효과연구나 현장 사례 분석 논문이 적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과제를 설정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만큼 앞으로 미디어교육 효과연구와 다양한 교육 현장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한국 미디어교육 논문의 연구 방법론별 경향 분석 결과 및 논의(연구문제4)

<연구문제4>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론별 경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연구의 방법론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4>과 같다.

<표4>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의 연구방법론 현황

편수(%)

분야	연구방법론					계
	문헌연구	인터뷰, 설문 조사연구	내용·콘텐츠 분석	참여 관찰, 실험 연구	기타	
언론학	21	13	1	1	1	37
교육학	53	8	8	4	2	75
기타	4	0	0	0	1	5
계	78 (66.7)	21 (17.9)	9 (7.7)	5 (4.3)	4 (3.4)	117 (100)

연구 방법론별 분석 결과 자료 분석 등 문헌연구가 전체 논문의 66.7%(78편)로 압도적인 우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뷰 조사나 설문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17.9%(21편)으로 나타났다. 내용 및 콘텐츠 분석 방법(7.7%)이나 참여관찰 또는 실험연구(4.3%)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는 현재 주로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논문이 가장 많아 앞으로 조사연구나 내용 분석 또는 참여 관찰이나 실험 연구방법 등을 사용하는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연구 대상이나 주제 또는 목적에 따라 연구 방법은 다양하게 채택될 수 있다. 특정 연구 방법이 우월하다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당하는 것도 학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가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주제 등이 문헌연구를 통해서 보다 설득력있게 입증될 수 있는 분야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의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연구 방법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1984년부터 2010년 9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49종에 발표된 미디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주제 논문 11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 미디어교육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조건의 교육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교과과정이나 교재 개발, 그리고 지도자 양성과 같은 문제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결과제였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 때문에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는 그 역사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아직 이론적, 방법론적 체계화나 연구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관련 연구자 수나 논문집 발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편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실태와 경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시기별 경향은 어떠한가?'(연구문제1),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분야별 경향은 어떠한가?"(연구문제2),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 주제별 경향은 어떠한가?"(연구문제3),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론별 경향은 어떠한가?"(연구문제4)와 같은 4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 시기별 분석 결과 1990년대 이전 초기 연구는 주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의 소수 연구에 불과했고, 언론학 분야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

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지만 이를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나 기타 학술지 게재 논문까지로 확대할 경우 언론학 중심 연구 경향을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전체 분석 대상 논문 중 88.1%(103편)가 2001년 이후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미디어교육 연구는 2001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현상은 실제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기관 주도로 시행된 미디어교육이 1990년대 이미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당시 연구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는 곧 한국에서는 미디어교육이 초기에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기 보다는 현장 사례 중심으로 양적인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01년 부터는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 편수가 급격히 늘어 났는데, 이 기간 중에도 전반기(40.2%)에 비해 후반기는 9월까지의 연구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47.9%로 급증하고 있어서 갈수록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는 초기인 1995년 이전에는 주로 언론학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64.1%로 언론학 분야에서의 연구 31.6%에 비해 두배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또는 법적 체계화 등을 위해 많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언론학 관련 분야의 정책적 추진 움직임에 비해 연구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학 분야를 다시 세분화하여 구분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교육학 분야 논문 75편 중 교육공학이 17.3%(13편), 교육학이 14.6%(11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디어교육이라는 학문 분야의 특성상 교육공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앞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도 있다. 주로 어느 과목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가는 한국에서의 학교 미디어교육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인데 국어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32%(24편)으로 사회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 5.3%(4편)를 압도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 중 2010년 9월 현재까지 단 1편의 논문만을 게재한 학술지가 전체 총 49종 중 30종으로 6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미디어교육 연구가 일부 학술지에 치우쳐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교육과정·교수법·교재개발 관련 연구가 전체의 36.8%(43편)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개념·이론·모델 개발 관련 연구(22.2%), 정책·실천과제 연구(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디어교육 효과연구(7.7%)와 교육현장 사례분석(3.4%) 관련 연구는 관련 논문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먼저 교육학 또는 교육공학 관련 주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개념 및 이론 연구와 정책 연구가 비슷한 비율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넷째, 연구 방법론별 분석 결과 자료 분석 등 문헌연구가 전체 논문의 66.7%(78편)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뷰 조사나 설문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17.9%(21편)으로 나타났다. 내용 및 콘텐츠 분석 방법(7.7%)이나 참여관찰 또는 실험연구(4.3%)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의 질적, 양적 수준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열기나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특히 연구 방법, 분야, 주제 등에서의 보완 또는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2.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제한점

이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의 활성화

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 및 매체 환경에 맞는 한국적 미디어교육 모델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한국형 미디어교육 이론 정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는 현재 주로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논문이 가장 많아 앞으로 조사연구나 내용 분석 또는 참여 관찰이나 실험 연구방법 등을 사용하는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는 미디어교육 효과연구와 다양한 교육 현장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동안 축적되어온 국내 미디어교육 실천 사례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소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제 학술대회에서 한국 미디어교육의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미디어교육 전공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관련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를 비롯한 연구 공동체 중심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미디어교육 전공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확보나 학술지 발간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미디어교육 관련 과목의 설치와 개설을 통해 미디어교육 연구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미디어교육 전공 과목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가르칠 교수 인력 양성을 통해 미디어교육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특성 상 미디어교육 연구 분야는 실제 교육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종교 단체와 각급 학교의 미디어교육 관련 지도자나 교사와의 공동 연구 또는 공동

작업을 통해 연구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 외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분석 대상 연구 논문 검색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검색 사이트 외에 보다 다양한 사이트를 복수로 활용하여 분석 대상 논문 수집의 대표성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대표적 키워드 외에 미디어교육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유사 또는 인접 키워드를 이용한 논문 검색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어느 부분까지를 미디어교육 관련 논문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이라는 제한점을 두고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으나, 한국 미디어교육 연구 수준이나 경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행본, 교재, 워크북, 정책보고서, 각종 세미나 발제문 등의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 역시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한국의 미디어교육 연구 경향과 외국의 연구 경향과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디어교육 연구의 국제 비교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진숙, 2005, “독일에서의 초중등학교 미디어교육 교과과정 연구”,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제1차 컨퍼런스 발표논문.
- 기선정·김광희, 2004, “미디어교육 교재 내용 분석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정체성”,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기태, 2009, “미디어교육 연구 역사와 현황”, 『한국언론학회 50년사』, 한국언론학회. pp. 987-1017.
- _____, 2007. “한국 미디어 교육의 성격 분석 및 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37호, pp. 139-167.
- _____, 1988,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언론문화연구』 6집,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김양은, 2005. “미디어교육의 개념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28호, pp. 77-110.
- 전경란, 2009, “미디어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미디어교육 학술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미디어교육연구』 1호, 한국전파진흥원, pp. 9-54.
- 안정임·전경란, 2008, “서사분석을 통해 본 미디어교육 교재의 미디어교육 인식구조”, 『방송통신연구』 겨울호, pp. 169-199.
- 이정훈, 2009, “멀티미디어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현황”,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발제논문.
- 최민재, 2006, 『한국의 미디어 교육 현황』, 서울: 한국언론재단.
- 최창섭, 2000, 『한국형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진모델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창섭, 1980, “초중고생을 위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연구”, 『신문연구』, 여름/겨울호, 관훈클럽.
- 한국미디어교육학회, 1997-2009, 미디어교육전국대회 발제집 (1회-13회).
- Allen, M., 1999, “The role of meta-analysis for connecting

critical and scientific approaches: The need to develop a sense of collaboratio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16(3), pp. 373-379.

Trend Analysis of Media Education Research in Korea

Kim, Ki-tai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media education research in Korea by analyzing a total of 117 studies published between 1984 and September 2010. This study is guided b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has media education research in Korea changed over time? Second, what are the main research fields? Third, what are the main research topics? Finally, what are the main research methods?

Only 14 studies (11.9%) were published before 2001, and a total of 103 (88.1%) were published from 2001 to September 2010. This indicates that media education research in Korea became active only after 2001. Further, there were more pedagogy-related studies than mass communication-related ones, and studies focused mainly on educational processes and instruction methods. The dominant research method was data and document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ppropriate research methods and suggests some avenues for future media education research.

Key Words : Media Education, Research Trend, Media Literacy

< 부록 : 분석 대상 연구논문 목록 >

< ~1990년 논문, / 총 6편 >

1. 김학수(1984), 시청자와 미디어교육,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2. 김규(1986), 공영방송과 시청자,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3. 김우룡·오택섭(1986), 방송 커뮤니케이터와 시청자,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4. 차배근(1986), 방송수용자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5. 김영수(198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비주얼리터러시, 텔레비전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의 통합적 접근, 『교육공학연구』, 한국교육공학회.
6. 최선열(1989), 비판적 텔레비전 시청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신문학보』, 한국언론학회.

<1991~1995년 논문, / 총 2편 >

7. 김기태(1991), 시청자교육의 영역 및 방법 연구,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8. 안정임(1995),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이론적 논의, 『방송연구』, 방송위원회

<1996~2000년 논문, / 총 6편 >

9. 권성호(1997),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한국교육공학회.
10. 정현선(1998), 인문학으로서의 국어국문학/사회과학으로서의 국어교육연구: 미디어 교육 연구의 예를 통한 국어교육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11. 박숙희(1999), 통합교육과정에서의 미디어교육-미디어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정보미디어연구』,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12. 한정선(2000),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해석과 접근, 『교육공학연구』, 한국교육공학회.
13. 안정임(2000), 미디어교육의 한국형 모델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회.
14. 문혜성(2000), 미디어교육학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미디어 선용능력,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회.

<2001~2005년 논문 / 총 49편 >

15. 강내원(2001),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비판적시청과 미디어교육적 함의-프로그램 구성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198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9집

16. 권성호(2001), 기독교교육을 위한 미디어교육프로그램 개발사례, 『기독교교육정보』.
17. 권성호·류미아(2001), 미디어교육이 청소년의 TV광고판별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 안정임(200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 이차숙(2002), 유아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방법연구』.
20. 김정자(2002), 국어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의 수용-미디어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1. 정현선(2002), 성찰적 문화교육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22. 이광복(2002), 상호문화적 미디어능력-독일 문학교육의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독어교육』.
23. 권성호·서윤경·강인경(2002)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미디어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 송미선·박현주(2002), 유아미디어교육 방법에 관한 고찰, 『어린이미디어연구』.
25. 김복영(2002), 사회과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회과교육』.
26. 김기태(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 자율규제 추진 방안 연구: 미디어교육과 민간자율감시운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7. 문혜성(2003), 어린이들의 판타지 세계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한국·이스라엘·독일·미국어린이들을 중심으로한 국제미디어교육 연구, 『한국언론학보』.
28. 권성호·신영수(2003), 미디어교육을 위한 웹기반 학습환경 프로토타입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9. 안정임(2003), 한국에서의 TV시청중재 유형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0. 김민하·안미리(2004), 디지털리터러시 능력 확인을 위한 문항개발 및 능력평가, 『교육정보미디어연구』.
31. 정현선(2004), 비판적 미디어 읽기의 국어교육적 수용을 위한 교수전략 연구, 『새국어교육』.
32. 정현선(2004),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33. 정현선(2004), 동화와 애니메이션 ‘보기’(viewing)를 중심으로 한 멀티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34. 정현선(2004),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제도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35. 강은진·현은자(2004), 유아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아동학회지』.
36. 박남수(2004), 주체적 정보활용능력 육성을 위한 사회과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사회과교육연구』.

- 37.박기수(2004), 애니메이션의 미디어교육 활용방안 연구, 『국제어문』.
- 38.안정임(2004), 미디어교육과 공영방송의 역할,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문화방송.
- 39.서윤경·권성호(2004), 프락시스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을 위한 학습 전략 개발 및 적용, 『교육공학연구』.
- 40.김양은(2004), 교육 환경 변화와 미디어교육의 과제, 『중등교육연구』.경북대 사대 부속중등교육연구소..
- 41.김양은(2004), 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중등교육연구』, 경북대 사대부속중등교육연구소.
- 42.박석규(2004),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 43.박지선(2004), 프랑스 미디어문화교육과 중학교 자국어 교육 내의 미디어 리터러시, 『중등교육연구』.
- 44.김영순·강윤주(2004), 독일학교 미디어교육의 실천과 교훈, 『중등교육연구』.
- 45.최용환·이문규(2004), 국어교육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 수용에 대하여, 『중등교육연구』.
- 46.정민주(2005), 미디어 문식성을 위한 텍스트 수용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 47.김양은(2005),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언어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 48.김양은(2005), 미디어교육의 개념변화에 대한 고찰, 『언론정보학보』.
- 49.강진숙(2005), 미디어능력의 개념과 촉진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 50.강진숙(2005), 미디어능력의 구성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 51.임지룡·김영순(2005), 중등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문화기호학적 방법론 『중등교육연구』.
- 52.권성호·심현애(2005), 디지털 소비자(prosumer)의 수행영역 확대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내용 설계 전략, 『교육정보미디어연구』.
- 53.은지용(2005), 사회과에서 매체해독을 활용한 비판적 담론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 54.김효정(2005)국어시간에 미디어 읽기-랩과 청소년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수업과 자기표현, 『국어교육연구』.
- 55.김연동(2005), 국어시간, 미디어교육을 위한 새로운 풍경들, 『국어교육연구』.
- 56.송영필(2005), 국어과 수업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국어교육연구』.
- 57.강은진·현은자(2005), 유치원교사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미디어교육 현황, 『한국영유아보육학』.
- 58.김기태(2005), 문자읽기와 영상읽기 능력 비교를 통한 미디어교육 효과연구, 『언론과학연구』.한국지역언론학회
- 59.서윤경(2005), 홈스쿨에서 프락시스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프로그램에 대

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60. 이광복(2005), 문화교육의 확장으로서 미디어교육: “문학과 미디어”강의의 경우, 『독일언어문학』, 한국독일언어문학회.
61. 김경일(2005), 정보격차 해소방안으로서 미디어교육: 독서교육 관점에서, 『한국출판학연구』.

<2006~2010년 논문 / 총 56편>

62. 안정임(2006), 디지털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자복지 정책적 함의, 『언론정보학보』.
63. 선미라(2006), 미디어콘텐츠 이해에 필요한 청소년 미디어교육의 기호학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64. 최용환(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에서의 매체교육, 『국어교육연구』.
65. 박수홍·황영미(2006), 초등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블렌디드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66. 이광복·송희영·임병희·김경란(2006) 문학교육의 확장으로서 미디어교육-영화, TV드라마, 애니메이션, 하이퍼픽션, 『카프카연구』.
67. 강은진·현은자(2006), 유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68. 한귀은(2006), 국어교과서의 영상제작활동 도입방안, 『국어교육학연구』.
69. 김대희(2006), 리터러시 개념의 확장에 관한 연구-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70. 주세형(2006),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식별교육 내용의 변천양상과 국어교육사적 함의,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71. 박지선(2006),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센터, 『프랑스학연구』.
72. 김선경(2006), 초등학교 국어과에서의 정보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 전자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73. 정현선(2006), ‘언어·문화·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 고찰, 『한국학연구』,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74. 안남일(2006),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문학과 영상매체에 대한 연구, 『한국학연구』,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75. 강진숙(2007), 미디어 능력에서 ‘디지털 능력’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능력 축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방법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회.
76. 강진숙(2007), 미디어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과제와 문제점 인식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77. 남유미·정현선(2007), 매체언어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애니메이션 서사 수용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이화여대 사대교과교육연구소.
78. 김상원(2007), 인문학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와 문화산업, 『독일언어문학』, 한국독일언어문학회.
79. 이창현·김성준(2007)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방송 수용특성과 미디어교육의 방향, 『북한연구학회보』.
80. 박선웅·박길자(2007), 사회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문화교육, 『시민교육연구』.
81. 장영익(2007), 비판적 미디어 읽기와 다양한 외국어교육의 타당성-독일 언론매체에 나타나는 한국의 이미지 분석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82. 권주만·오치선(2007), 청소년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청소년학 연구』.
83. 김대회(2007), 국어교육과정에서의 미디어교육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84. 최지현(2007),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탐구-문화, 매체, 문식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85. 이채연(2007), 매체언어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국어교육학연구』.
86. 최미숙(2007),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87. 김정자(2007), 국어교육과정의 매체언어교육내용, 『국어교육학연구』.
88. 김대행(2007), 매체환경의 변화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89. 이정준·김은규·강진숙·박상호(2007),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교육 이용동기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미디어능력을 중심으로, 『언론정보학보』.
90. 김양은(2007),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모델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학보』.
91. 최경진(2007), 방송인력양성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의미고찰: 대학방송영상교육의 지상파방송3사 인력 운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언론정보학보』.
92. 김기태(2007), 한국 미디어교육의 성격분석 및 논의, 『언론정보학보』.
93. 김양은(2008), 게임미디어교육의 내용구성에 관한 시안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94. 문혜성(2008), 대중문화 속 종교유사성에 관한 종교미디어교육연구-<다빈치코드>를 사례로 한 상징교수법 교수학습모형 개발, 『언론정보학보』.
95. 안정임·전경란(2008), 서사분석을 통해 본 미디어교육 교재의 미디어교육 인식구조, 『방송통신연구』.
96. 안정임(2008), 인터넷 이용 중재 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 97.김기국(2008), 한국과 캐나다 국어교과의 사진 이미지 비교분석-미디어교육을 위한 사진텍스트의 기호학적 분석, 『중등교육연구』.
- 98.김대회(2008),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교육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 99.김대회(2008), 매체언어 쓰기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 100.전세경·김유정(2008),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계 개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 101.김병련·강경숙(2008), 특수교육에서의 미디어 접근과 활용교육, 『특수교육』.
- 102.김은규·김성벽(2008),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내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실태에 따른 학년별, 성별 차이 분석, 『한국출판학연구』.
- 103.서인숙(2008), 미술교육에서 미디어교육 수용에 관한 연구, 『교원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104.유진아(2008), 청소년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실천 방향, 『청소년시설환경』,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105.손애경(2008), UCC 영상문화콘텐츠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논총』, 한국디자인지식포럼.
- 106.강진숙(2009), 영상뉴미디어 교육과정과 자격제도에 관한 인식연구-미디어특성화 교사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 107.강진숙·이영주·김영순(2009),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사례 연구: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학습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정보학보』.
- 108.장사형(2009), 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적 소고, 『교육사상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109.정현선(2009), 디지털시대 글쓰기에 있어 ‘표현도구’와 ‘매체특성’이해의 필요성: 초등학교 어린이의 사진과 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 110.전현곤(2009), Brookfield의 비판적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안암교육학회.
- 111.김은규(2009) 미디어교육에 대한 도시와 농촌간의 실태 차이 비교연구: 전라북도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회.
- 112.김영순·강진숙·변철희(2009), 매체언어 사용자로서 장애인의 미디어교육 개선 방안연구: 교수자 및 학습자 FGI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 113.김대회·염은열(2010), 중등국어교사 교육에서의 매체언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 114.강진숙·이제영(2010), 미디어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Q방법론적 연구: 미디어교육 대학원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 115.나경애·이상식(2010),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 116.조연하·배진아(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내 미디어이용 중재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117.이성균·윤영두(2010),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연구: 온라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